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의원(意園, 상상의 정원)의 조경학적 함의

한소영* · 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I. 서론

풍석(楓石) 서유구(徐有渠, 1764~1845)는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살았던 인물로서, 19세기를 대표하는 학자이다. 그가 저술한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는 다양한 분야의 방대한 자료를 채록한 것으로 유명하며(조창록, 2008), 우리나라 실학을 대표하던 시기 대표서적으로도 손꼽힌다. 주목할 점은 현재까지 연구된 옛 문헌 가운데 건축과 조경에 관한 내용을 전면적으로 풍부하게 설명해 놓은 저술은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가 유일하고도 독보적이라는 점이다(안대회, 2005).

서유구가 살았던 우리나라 18·19세기는 원예문화의 극적인 확대가 대표적인 특성으로 나타나는 시기이다(안대회, 2004; 정민, 2007). 서유구를 비롯한 문인층들 사이에서 각종 화훼에 대한 수요 및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더불어 정원 경영에 많은 관심을 쏟던 시기였다. 정원에 각종 화훼와 괴석을 놓고 관상용 앵무새나 비둘기 등의 새를 위한 집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 화훼 및 분재의 유통이 크게 성행하게 된다. 물론 이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만 가능했다. 정원을 경영할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의원(意園), 즉, 상상의 정원¹⁾을 꾸며 글로 남기는 일도 유행처럼 번졌었다. 『임원경제지』에도 이러한 상상의 정원에 대한 내용이 나타난다. 특히 5권에 속하는 「이운지」에는 이러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 한문학 및 국문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연구되었으나, 아직 조경학에서의 구체적인 연구는 미비하다. 그나마 19세기 문인 홍길주(洪吉周)의 상상의 정원이 나타나는 「숙수념(塾遂念)」을 연구한 홍형순과 이원호(2006)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경학적 고찰은 조경학계에서 우리나라 19세기 정원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관련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중 「이운지」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고, 그의 정원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어떠한지를 고찰해 본다. 둘째, 「이운지」를 통해 18·19세기에 나타난 상상의 정원의 한 단편을 살펴보고, 이러한 상상의 정원의 공간 구성 및 내재된 의미 등을 고찰하여 본다. 이에 대한 조경학적 함의를 도출해 본다.

II. 서유구와 임원경제지

서유구의 본관은 達城, 字는 準平, 호는 풍석이다. 정조·순조·헌종 연간에 고위 관직을 두루 역임한 관료이자 학자다. 할아버지 서명응(徐命鷹)은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을 지낸 대학자로 정조 때 규장각의 창설에 기여한 인물이며, 아버지 이조판서 서호수(徐浩修)는 『해동농서(海東農書)』의 저자로 규장각 직제학에 재임 시 여러 국가적 편찬 작업에 관여하였다. 외할아버지는 김덕균(金德均)이다.

그는 실학의 이용후생(利用厚生)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782년(정조 6년)에 서명응이 박제가의 『북학의』에 붙인 '서문(序文)'을 보면, 당시 북학과 학자들이 주창한 '실학(이용후생)'에 그가 얼마나 적극적인 지지와 찬사를 보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²⁾.

서유구 집안의 정치적 후원자나 다름없었던 정조가 급서(急逝)한 지 6년째 되는 1806년(44세), 당시 달성서씨 가문을 이끈 중부(仲父)인 서형수(徐滢修)가 '김달손의 옥사사건'에 연루되어 정계에서 축출되는 것과 함께 향리로 물러났다. 이 일을 계기로 서유구는 스스로 홍문관 부제학을 사퇴하고 은둔생활에 들어간다. 이때부터 18년 동안 서유구는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생계를 꾸려야 했다. 1823년 정계로 복귀하기까지 향리에 은거하면서 조선 최대의 농서이자 유서(類書)라 할 수 있는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를 저술한다(김문식, 2009). 그는 임원에서 생계를 해결하는 한편 경세의 이상을 펼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농학을 토대로 하는 '임원경제'를 자신의 삶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였다(조창록, 2003).

강명관은 서유구는 단 1수의 시도 남기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문인·예술가라기보다는 학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이야기한다. 조선조의 지식인을 문인 혹은 학자로 명쾌하게 양분하기란 어려우나, 한 지식인이 남긴 문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그 관심의 집중도에 따라 경계를 지을 터수가 전혀 없지도 않다는 것이다(강명관, 2000).

『임원경제지』는 다양한 분야의 방대한 자료를 채록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 내용들은 19세기 전후를 살았던 조선의 시대

부가 견문할 수 있었던 서책의 거의 모든 범위를 대상으로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통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라고도 부르는데, 그 까닭은 서유구가 이 책에서 '농업 및 일상생활의 경제'에 관해 모두 16가지 분야로 나누어 저술했기 때문이다.

농업생산 전반을 다루는 「본리지(本利志)」에서 시작해서 식용식물과 약용식물을 다루는 「관휴지(灌畦志)」, 화훼류의 일반적 재배법을 다룬 「예원지(藝畹志)」,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을 다루는 「만학지(晩學志)」, 길쌈을 다루는 「전공지(展功志)」, 점후(占候)를 다루는 「위선지(魏鮮志)」 등, 이 책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 그것은 농서(農書)의 성격이 강하다. 또 「전어지(佃漁志)」의 어업, 「정조지(鼎俎志)」의 식생활, 「섬용지(贍用志)」의 건축, 「인제지(仁濟志)」의 의학, 「예규지(倪圭志)」의 상업 등, 그 분류 방식과 서술 체계 등을 고려해 보면 일종의 類書라고 할 수 있다(조창록, 2008; 엽정섭, 2009).

III. 「이운지」를 통해 본 서유구의 정원 이상향

1. 「이운지」의 구성과 내용

「이운지」는 단적으로 말해서 선비들의 취미생활에 관해 서술한(志)이다. 사대부가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주거 공간, 여가 생활의 도구, 인테리어 소도구, 문방도구, 각종 예술품, 서적의 구입과 보관, 여행 방법과 도구, 손님 초대와 명절 나기 등의 내용을 8권의 분량에 체계를 갖추어 다룬 것이다(안대회, 2005).

이와 같은 구성과 내용은 문인들이 가치 있게 여긴 삶의 구체적인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도서 및 서화, 고동의 감상과 수집, 다양한 풍류 취미는 풍요로운 물질문화와 예술을 향유하였던 서유구의 경험과 취향, 예술관을 반영한 것이며, 그 주변 경화세족³⁾의 생활 양상과 가치관을 대변한 것으로 해석된다(박은순, 2000). 여기에서 서유구는 주거의 실제적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과 서술과 함께 이상적인 주거지의 선택, 건축방법, 건축부재, 조경, 건축물의 종류 등 주거문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룬다(안대회, 2004).

2. 「이운지」를 통해 본 서유구의 정원 이상향

1) '문화'와 '자연'의 집약처이자 공간개념의 확장으로서의 정원

「이운지」는 크게 '總論', '園林潤沼', '齋寮亭樹'로 나뉘어진다. '총론'에는 山居의 주거미학과 건물의 배치문제를 설명하였고, '園林潤沼'는 조경수, 울타리, 연못, 석가산을 비롯한 조경문제를 다루었다. '齋寮亭樹'는 다양한 용도와 목적을 가진 건축물을 소개하였다. 여기서 이들 건물은 생계와 관련이 있는 최

표 1. 「이운지」 卷別 大目과 주요 내용

卷1	衡泌舖置	가옥과 정자 등 선비가 거주하거나 소용하는 건물에 대한 언급에서 시작하여 책상, 침구, 병풍과 가리개, 문구와 식기 등을 포함한 일상용품
	怡養器具	
卷2	山齋清供 上	한아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차와 향, 거문고, 갈 등의 소품
	山齋清供 下	생활 주변의 화조, 동물
卷3	文房雅製 上	필묵으로 대표되는 문방용구
	文房雅製 下	벼루, 종이, 도장, 畫室雜器 등 문방용구
卷4	藝翫鑑賞 上	古董, 玉器, 도자기, 중국의 金石과 刻帖, 조선의 금석과 墨翟
	藝翫鑑賞 下	그림: 명화의 기준, 중국 송원대 이후 작품으로 당시까지 전해지는 중국 그림
卷5	圖書藏訪 上	도서의 구입과 소장, 처분, 관리 등 도서관 관련 실무적인 사항 및 정보
	圖書藏訪 下	도서의 활자, 판본, 종이 및 京外鑲本에 의한 서책의 종류를 기록
卷6	燕間功課	한아한 시간을 보내는 방식과 절기에 따른 풍류
	名勝遊衍	명승 탐방의 방법과 소용 연구
	文酒燕會	선비들의 모임과 풍류의 내용
	節辰賞樂	절기에 따른 아취 있는 삶의 방식

자료: 엽정섭, 2009: 32; 박은순, 2000: 226.

소한의 주택이라 볼 수 없는, 문화와 여가를 즐기 위한 여유 공간이 대부분이다.

서유구는 '문화적인 것'을 추구하였으며, '자연적인 것'을 '문화적인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여겼다. 특히 「이운지」에서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취미 활동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여유와 문화를 누리는 방안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양반의 이상적인 주거공간에 관한 연계된 내용이 많이 있다⁴⁾.

또한 정원에서 파생되어, 서재 혹은 출판 및 연구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도서관 같은 공간 구성과 연계하는 것이 이상적인 정원으로 여기고 있다. 서유구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작품들 중에 정원을 구성하는 요소들 가운데 서재의 특징이 부각되어 그 의미가 확장된 공간을 제시한 것이 있다. 집안을 구획 짓고 설정하는데 필요한 일부분인 서재가 아니라 세계를 표상해내는 대표적인 공간으로서 서재가 등장한 것이다(최원경, 2007).

2) 상상의 정원의 형태

「이운지」 내에서 정원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제1장 '형비포치(衡泌舖置)'안에 실려 있다. 형비포치란 은자(隱者)가 생활하는 주거 공간의 배치를 의미한다. 은자가 살아가는 집을 의미하고, 舖置는 배치, 포국(布局)을 의미한다. '衡泌'란 곧 정원으로 물러나 유유자적 하며 살기를 바라는 자의 이상적인 모습을 상징한 말로 되어 있다⁵⁾. 여기서 서유구는 원림을 설계하고 연못을 꾸미고 여러 부속 건물을 배치하는 방법들에 대해 소개했다(신영주, 2005). 이 중에서 정원은 '은자가 즐기는 곳'⁶⁾

의 범주로 분리할 수 있다.

『이운지』에는 세 가지 구체적인 상상의 정원에 대해 언급이 되어 있다. 하나는 ‘장취원(將就園)’이고, 두번째는 ‘용도서(龍圖墅)’, 그리고 ‘귀문원(龜文園)’이다. 장취원은 황성주(1611~1680)의 『장취원기』를 인용해 놓은 것이다. 이는 황성주가 만든 상상의 정원으로, 조선에 전해져 지식인들 사이에서 많이 읽혀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이들이 상상의 정원을 설계하도록 만든 촉발제가 되었다(안대회, 2004). 중국 조경미학의 정수를 담고 있는 걸작의 하나인 장취원은 將園과 就園의 2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장대한 상상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취원은 괴로운 현실 저편에 만들어 놓은 주거공간이다. 서유구는 『이운지』에서 원림을 이야기하며 장취원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그 역시 장취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취원과 더불어 소개된 용도서와 귀문원은 홍만선이 『산림경제(山林經濟)』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으며, 『이운지』에 그대로 인용됐다. 『산림경제』의 기록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설계도는 이동언(李東彦, 1662~1708)이 박광일(朴光一, 1655~1723)의 문집에 실린 『용문정사도기(龍文精舍圖記)』를 보고 착상을 얻어 설계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각각 하도와 낙서의 위치와 數를 상징하여 경영한 것이다. 이 중 용도서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운데 등근 壇을 쌓되 높이 3척에 사방 5보쯤 되도록 한 다음 그 위에는 십자의 閣을 지어 5칸을 만들고, 중간은 방으로, 4면은 마루로 만들어 天五를 형상한다. 단 주위로 8면에 3층의 계단을 두되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도록 만들어 先天八卦를 형상한다. 아래에 뜰을 만들고 뜰 가로 줄지어 墩臺 10개를 쌓아 빙 두르도록 하여 地十을 형상한다. 돈대 正北쪽에 우물이나 못을 파서 天一을 형상한다. 돈대의 남쪽에는 쌍 돈대를 두어 地二를 형상한다. 동쪽에 세 개, 서쪽에 네 개를 둬서 天三과 地四의 형상이다. 또 그 밖을 빙 둘러 북쪽에 여섯 개, 남쪽에 일곱 개, 동쪽에 여덟 개, 서쪽에 아홉 개를 두어 圓陣의 모양을 하도록 한 것은 地六, 天七, 地八, 天九를 형상한다. 이렇게 하도 55수가 채워진다. 그리고 그 위에 十長靑을 심어야 하는데, 십자가 모퉁이에는 모두 대나무를 심고, 안쪽을 두른 열 개의 돈대에는 줄지어 側柏을 심어 병풍을 삼는다. 南二의 돈대에는 赤木을 심어 문을 삼고, 東三에는 화양목을 심고, 西四에는 眞松을 심는다. 바깥 북쪽에 海松 여섯 그루를 심고, 東入에 회나무, 西九에 소나무, 南七에 紫檀을 심는다. 이것이 용도서이다(신영주, 2005: 400, 재인용).”

또한 정원을 설계하는 일과 관련하여 서유구는 울타리 만드는 법, 연못을 만들고 시냇물을 끌어오는 법, 석가산을 만드는 법 등을 더 소개해 놓았다.

3) '경영'에 대한 관심

『이운지』에는 임원 경영을 통해 사대부의 품위 있는 문화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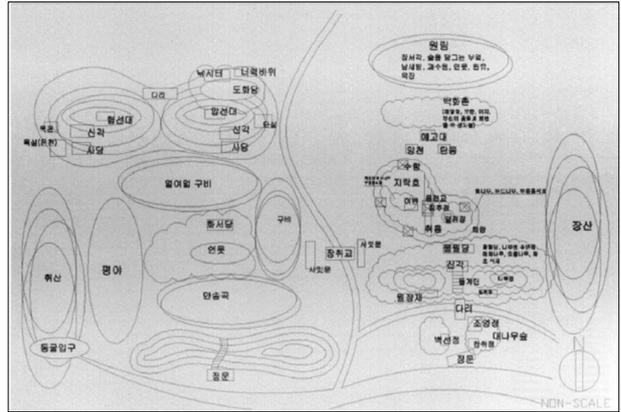


그림 1 '장취원(將就園)'의 구성
자료: 홍형순, 이원호, 2006: 76.



그림 2 '용도서(龍圖墅)'
자료: 신영주, 2005: 399



그림 3. '귀문원(龜文園)'
자료: 신영주, 2005: 399

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 이는 서유구가 추구한 생활이상이자 사대부적 삶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며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임원이란, 도시나 시골이나 혹은 서울이나 지방이나 하는 구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문화적 콘텐츠를 가꾸고 누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조창록, 2008). 즉, 서유구의 이용후생학은 인간의 의식주 생활을 윤택하게 영위하는 厚生에 목표를 두고 다양한 利用의 도구와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는 더불어 여기에 문화생활과 여가생활의 개념까지를 접목하였다(안대회, 2006).

IV. 「이운지」를 통해 본 18·19세기에 나타난 상상의 정원(意園)의 조경학적 함의

『임원경제지』에는 건축과 조경의 보편적 사실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한국의 산수와 환경에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의 실상과 의미에 대한 오래된 고민이 담겨 있다(안대회, 2005). 이

시기 사대부가 상상한 정원은 설계자 상호 간에 정보와 미학이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다.

조선후기의 사대부들은 주거지 선택에 관심을 집중하였고, 공간의 배치와 그 속에서의 생활 조경과 조경요소를 심도 있게 논하였다. 일부 사대부들은 본격적으로 집과 장원을 경영(經營)하고 저택에서 영위하는 삶을 설계하였고, 그 구체적 과정과 내용을 문헌기록으로 남기거나 화가를 불러 그림으로 그렸다(안대회, 2007). 따라서 당시의 상상의 정원들은 당시, 경화 세족들이 조성했고 향유했던 정원문화의 단편을 읽어낼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데 조경분야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임원경제지의 「이운지」는 이러한 가상의 공간이자 상상의 정원, 즉 의원(意園)을 집대성 해놓은 저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상상의 정원들은 현실계와 관념적·언어적 구조물의 관계를 실제와 그림자의 관계로 파악하고, 언어적 구조물의 세계를 현실계로부터 독립된 자족적 공간으로 사고한다. 우리나라 18·19세기는 한편으로 경제 부흥기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때 등장한 상상의 정원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과거 상상의 정원 서술은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 화려한 정원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지에 대한 원인의 한 단편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공통으로 추구하는 이상적인 방향이 있었지만 결국 정원 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했던 점은 작정자의 의도였다. 여기에서 개개인의 취미와 추구하는 문화적 이상향에 따라 소소한 요소들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겉모습의 화려함을 추구하기 보다는 정신적 고고함과 연계하고자 하였으며, 이것은 정원을 서재의 연장이라고 생각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둘째, 이 시기 서유구뿐만 아니라 상상의 정원 저술자들은 이를 단지 상상으로 넘기려고 하지 않았다. 대부분 직접 만들고자 하였고, 경영과 연계하였다는 점이다. 건물의 구조, 꾸미기, 화훼와 과수, 텃밭과 담, 시내와 길의 선택, 배치가 조선적인 실정에 부합하며, 아무리 상상이라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을 상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안대회, 2004).

셋째, 우리나라 특유의 정원 설계의 방법에 대해 재고하고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이미 정원 설계가 사대부의 취미 생활의 하나로 자리 잡았었다는 점에서 이미 정원설계의 황금기였고, 이는 우리가 통상 알고 있었던 서양의 정원 설계 방식과는 다른 노선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조경 설계의 미학이 서양과 같이 구체적인 도면과 가시적인 요소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점에서 더불어 조경 설계의 의미에 대해서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지성인들의 예술적 취미와 깊이가 연계되어, 현실과 이상의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통로로 정원을 받아들이고, 이를 문학이나 회화를 통해 구체화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⁷⁾. 따라서 우리나라 정원 특성의 대표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문화 및 사회사를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거울이기도 하다.

V. 결론

우리의 정원들은 기록과 실제에 의거하여 살펴보다 보면, 한국적 자연관과 생활철학 등의 이상(理想)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정원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감상할 수 있는 대상을 넘어 서서, 주인의 욕구와 정신세계를 상징적으로 구현해 낼 수 있는 장소이다.

『임원경제지』는 단순 박학자의 소행이 아니라, 지식의 분류에 대한 목록학적 안목을 기반으로 하여, 지식의 검색 기능을 감안한 매우 완전한 형태의 유서였다(조창록, 2009: 34). 물론 서유구는 「이운지」를 통해 당대 최신 과학기술과 함께 이상적인 정원 및 주거공간 조성방법에 대한 소개하려고 노력했지만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미신에 가까운 것도 많다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운지」를 비롯한 당대 지식인들에 의해 작성된 많은 상상의 정원들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뚜렷한 형태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나라 전통 정원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를 던져준다.

또한 「이운지」에는 정원뿐 아니라 상상의 거주지와 관련된 내용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거주와 정원을 선을 딱 그어 구분하지 않고 주거, 정원 심지어 울타리 외의 동산 등 까지를 하나의 거주지로 통합해 보고 있다. 따라서 자연과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려 했던 선조들의 지혜, 이들을 매개하는 공간으로서 정원을 활용하고, 이마저도 서재와 같은 지식 공간의 확장으로 보는 인식 등은 현대 조경에 많은 의미를 던져 주기도 한다. 현대의 정원을 단지 주거 공간의 딸린 부속 공간 정도로 생각했던 인식에 대해 반추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18·19세기 서울과 경기지역의 지식인들이 창작한 글에는 저택, 별장, 누정을 비롯한 건축과 관련한 기록들이 집중하여 주거문화와 조경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표현했다. 지식인들은 그 욕구를 상상의 정원을 묘사한 記文, 즉 意園記에서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안대회, 2004: 111).
2. “이 책(『북학의』)에서는 규격에 대한 기술이 상세하고, 제작법에 대한 규명이 명료하다. 게다가 뜻을 같이 하는 동료의 견해까지 첨부하여 덧붙였다. 한번 책을 펼쳐서 읽으면 그 내용을 현실에 적용하여 시행할 만하다. 아! 그(박제가)의 마음 씀이 어찌면 이렇게도 주도면밀하고 또 진지하단 말인가!”
3. 경화세족은 조선 후기 문헌에서 자주 쓰이던 용어이다. 경화세족이라 함은 서울을 주된 생활공간으로 하는, 서울에 世居하는 양반가문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부대조건이 필요하다. 즉 서울에서의 세거뿐만 아니라, 관직의 획득 가능성이 다른 양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또 그 가능성이 사회적 통념으로 공인된 가문을 말한다(강명관, 1996: 172).
4. 모름지기 은자가 머무는 곳엔 매화와 대나무와 춤추는 학이 있어야 한다는 말. 서재 밖 담벼락에 담쟁이 넝쿨을 올리고 버루 셋을 연못 한 칸에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5. ‘衡澗’란 『시경』진풍의 ‘衡門’에 “형문의 아래에서 쉬고 놀 수 있으며, 샘물이 졸졸 흘러 배고픔을 즐길 수 있구나[衡門之下, 可以棲遲, 泌之洋洋, 可以樂飢]”에서 취해왔다. ‘衡門’은 달랑 장대만을 걸어 만든 초라한 문을 이르며 ‘泌’은 샘물을 이른다. 주자는 이에 대해 “이는 은거하면서 스스로 즐거워하여 달리 구하는 바가 없는 자의 말이다. 형문이 비록 얇고 누추하지만 그래도 놀고 쉴 수 있으며, 샘물이

- 비록 배부르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구경하고 즐겨워하면서 배고픔을 잊게 할 수 있음을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 주 6. '은자가 즐기는 곳'이라는 용어는 임원경제지의 「이운지」, '상택지', '섬용지'를 번역하여 『산수간에 집을 짓고』라는 저서를 서술한 안대회의 표현을 빌린 것이다.
- 주 7. 물론 문학적 맥락을 따름에 있어 중국의 「장취원기」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당시의 문인들은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조선적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새로운 상상의 공간을 설계하였다.
- 주 8. 가령 우물 자리 판별법은 낭만적이기까지 하다. “우선 대야에 물을 떠 곳곳에 놓으라고 한다. 물에 비친 밤하늘 별이 가장 크고 맑은 곳이 샘물 자리라고 한다. 약간 더 그럴듯해 보이는 방법으로 땅바닥에 대야를 엮어 놓았을 때 이슬 맺히는 곳을 택하는 것이 있다(안대회, 2005: 180).”

인용문헌

1. 강명관(1996) 조선후기 서적의 수입 유통과 장서가의 출현: 18, 19 세기 京華世族 민족문화사연구 (9), 민족문화사연구소, pp. 171-195.
2. 강명관(2000) 풍석 서유구의 산문론. 동아시아문화연구.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pp. 155-173.
3. 박은순(2000) 서유구와 서화감상학과 『임원경제지』. 동아시아문화연구.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pp. 210-239.
4. 신영주(2005) 『이운지』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사대부가의 생활 모습.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pp. 388-414.
5. 안대회(2004) 18, 19세기의 주거문화와 상상의 정원: 조선 후기 산문가의 기문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97), 진단학회, pp. 111-138.
6. 안대회(2005) 산수간에 집을 짓고. 서울: 돌베개.
7. 안대회(2006) 조선후기 달성서씨의 학풍과 실학: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를 통해 본 서유구의 이용후생학(利用厚生學). 한국실학연구 (11), 한국실학회, pp. 47-72.
8. 안대회(2007) 조선후기 사대부(士大夫)의 집과 삶과 기록. 한문학보 (17), 우리한문학회, pp. 3-26.
9. 염정섭(2009)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의 구성과 내용. 농업사연구 8(1): 1-42.
10. 정민(2007)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서울: 휴머니스트.
11. 조창록(2003) 풍석 서유구와 임원경제. 한문학보 (8), 우리한문학회, pp. 201-225.
12. 조창록(2008) 『임원경제지: 산림의 처사(處士)에서 임원의 생활인(生活人)으로.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pp. 803-819.
13. 조창록(2009) 『임원경제지』의 찬술 배경과 류서(類書)로서의 특징. 진단학보 (108), 진단학회, pp. 21-41.
14. 최원경(2007) 조선후기 문학 속에 나타난 가상의 공간과 미메시스. 한문학보 (17), 우리한문학회, pp. 451-471.
15. 홍형순, 이원호(2006) 19세기 문인 항해(沈瀛) 홍길주의 「숙수념(執遂念)」에 관한 조경학적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4(3): 67-68.